



조주완 LG전자 CEO
“질서·규칙없는 경쟁이
표준 될 것”
06



Economy

코스피	2484.43 (+27.62)	코스닥	697.57 (+3.10)
금리 (미국 3년)	2.536 (-0.085)	환율 (원-달러)	1437.30 (-1.60) (18일)



닛산 최고경영자 우치다 마코토(왼쪽)와 혼다 사장 미베 토시히로가 지난 3월 15일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中 BYD 세계 질주에 日 혼다-닛산 뭉친다

자동차 시장 지각변동

日 혼다·닛산, 경영 통합 협의
전기차 경쟁력 확보 생존 전략
800만대 판매 '공룡' 탄생 전망
현대차·기아 '글로벌 3위' 위협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화 시대를 맞아 중국 완성차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합병에 나선 것. 이 두 기업이 합병을 완료할 경우 현대차·기아를 위협하는 자동차그룹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된다.

18일 자동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이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주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서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운영방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스텔란티스는 2021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계 자동차 제조사 그룹이 합병하며 설립됐다.

혼다와 닛산은 곧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분과 기타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닛산이 지분 24%를 보유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자동차까지 향후 지주사 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의 통합이 완료되면 연간 판매 대수는 800만대를 넘어서는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한 현대차·기아(730만대)의 판매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혼다와 닛산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각각 398만대,

337만대였다. 미쓰비시는 78만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업계는 토요타자동차그룹과 혼다·닛산·미쓰비시 동맹의 양대 진영으로 재편된다. 이들은 전기차 부품 공동화, 주요 부품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합병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기술을 선도하는 테슬라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는 지난 3분기(7~9월) 113만대 판매하며 미국의 대표 완성차 제조 업체 중 하나인 포드(109만대)를 제치고 전세계 판매량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혼다는 91만대 판매하며 9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차(세계 3위)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세계 5위)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협업을 통해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상용 차량, 내연 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이다. 또 양사는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한다. (6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9조 규모 7개 프로젝트 내년 착공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비상사태 돌파구는 기업투자”

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포함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



최상목 부총리

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정용진, 트럼프 장남과 회동... 올해만 네번째

〈신세계그룹 회장〉

美 마러라고 리조트 1박2일간 방문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조우 가능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어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함께 하는 만찬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후원 조직인 ‘마가(MAGA)’가 주최한다.

만일,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게 된다면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서 첫 만남이 된다.

한편,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가능성도 언급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머스크 역시 현재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재선 기자 wotjs4187@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등 7개 단지 조경대상 수상

metro 아파트조경대상 휴앤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8일 서울 종로구 ‘르 큐제’에서 ‘2024 metro 아파트조경대상 휴앤휴(休&休) 시상식’을 가졌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입주아파트 단지(‘아파트의 미학’)에 소개된 27곳의 아파트 가운데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이사 등 심사위원들이 지난 달 27일 종합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조경혁신대상은 ‘복수원 자이렉스비아(GS건설)’가 차지했다. 이어 ▲커뮤니티대상 ‘제일풍경채움정(제일건



18일 서울 종로구 르큐제에서 열린 ‘메트로 조경대상 휴앤휴’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장규(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윤준호 SK에코플랜트 프로, 백현철 제일건설 매니저, 강형문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고문(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윤휘종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양문석 GS건설 홍보팀장, 김종원 대우건설 부장, 여천환 DL이앤씨 홍보팀장, 류탁수 쌍용건설 홍보팀장, 조동현 포스코이앤씨 과장. /손진영 기자 son@

설) ▲테마조경대상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DL이앤씨)’ ▲스마트환경대상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대우건설)’ ▲미래가치대상 ‘쌍용더플래티넘

장향(쌍용건설)’ ▲친환경단지대상 ‘더샵둔촌포레(포스코이앤씨)’ ▲브랜드 혁신대상 ‘SK뷰하익(SK에코플랜트)’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전지원 기자 jiw13@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덕수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따라 이뤄질 것” /사진 뉴시스
▲현재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 현재 ‘9인 체제’ 변수되나
▲이주호 “계엄, 분명히 동의 안 해... 국무회의 연락 못 받았다”



▲권성동 “한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해야” /사진 뉴시스
▲이준석 “한동훈, 다음 대선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실적 없어”

“여야 합의로 추경 빠른 처리를… 늦으면 경기회복에 영향”

이창용 한은총재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 1700억 ↓
“주말 회식취소 등에 소비 위축”

“환율,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디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

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

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強)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거부권 ‘만지작’

이르면 오늘 거부권 행사 할수도
김건희·내란특검 거부권도 예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하락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이 증정하는 크리스마스 썸 액자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탄핵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목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떨까. 해당 법안 2개는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관련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휴일이니,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 기자 syj@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유동적, 조심스러워 예상보다 시장 충격은 덜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안질의
“트럼프 리스크… 상황 녹록치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과 관련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비상계엄 시점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상황이 과거 탄핵 사태보다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4년은 대외 여건상 중국 경제가 좋았을 때고, 2016년은 반도체 수출이 좋은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대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탄핵사태로 인한 시장진퇴도도 (탄핵 정국)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핵 소추안은 국회서 의결된 사항이고, 지금으로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연계된 분은 채무조정을, 연계 전 단계인 분은 서민금융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준공절차 완화

>> 1면 ‘9조 규모 7개 프로젝트…’서 계속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세 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안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윤상현 처가 푸르밀·아이유 광고제품 ‘불매’… 유통가 날벼락

(국민의힘 의원)

후폭풍 일파만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임명때 ‘굽네치킨 창업주’ 잘못소개, 못매 ‘탄핵표결 불참’ 광규택 의원의 형 광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 불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유통업계가 한숨을 놓은 분위기 도 잠시, 탄핵 정국을 계기로 불매 운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가공업체 푸르밀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오면서 윤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푸르밀에 대한 불매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소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들이 푸르밀의 제품명과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푸르밀이 범롯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그룹 관련 제품으로도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유유로 시작한 푸르밀은 롯데그룹에서 독립한 후에도 롯데라는 사명을

쓰다가 상표권 문제가 불거져 2009년 푸르밀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굽네치킨 역시 이번 탄핵 사태로 못매를 맞고 있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경호 회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겸 전(前)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굽네치킨 닭을 독점 유통하는 크레치코의 창업주가 홍수석이며, 현재 크레치코는 아들에게

우회 승계한 상태다.

홍수석은 지난달 19일 열린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누구에게 반성하느냐”고 질문한 것을 놓고 “(기자의 그러한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굽네 측은 “정무수석 임명 당시 일부 매체가 그를 ‘굽네 창업주’로 잘못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 적극적으로 기사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굽네 창업주는 홍수석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연예계로도 불매 확산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 ‘소방관’이 타격을 입었다. 영화 ‘소방관’은 광규택 감독 작품으로, 광 감독은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광 의원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영화 관람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광 감독은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발빠른 진화에 나섰다.

보수성향커뮤니티에서는 탄핵 집회에 나선 팬들을 위해 카페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 다수 연예인들에게 화살을 겨누고, 해당 연예인이 광고하는 브랜드를 불매하겠다고 나섰다. 하이트진로, 삼다수, 우리은행 등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지갑을 여는 소비가 트렌드인 시대에 구매와 불매는 선택의 자유이고, 이러한 소비 행태 때문에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신경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좌제 식의 불매운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불매 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억울하게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당하는 기업과 가맹점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한화투자증권, 9만원→7만3000원 주가 하락요인 상당부분 이미 반영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 평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반도체 실적 부진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후에도 외국인은 단 두 차례만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9거래일 동안 9101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며 목표주가를 속속 낮추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월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9개 증권사 중 8곳이 목표주가를 낮췄다. ▲NH투자증권(9만원→7만5000원) ▲한화투

자증권(9만원→7만3000원) ▲키움증권(7만5000원→7만3000원) ▲유진투자증권(8만원→7만7000원) ▲BNK투자증권(7만6000원→7만2000원) ▲다올투자증권(9만3000원→7만7000원) 등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올 4분기 영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낮추는 이유는, 최근 미국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상승에도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뚜렷한 고객사 확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D램과 낸드 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메모리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며,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12월 FOMC, 마이크론 실적,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경제지표 등 매크로와 펀더멘털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은 외국인인 16일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외국인인 삼성전자 주식 74만7338주를 순매수했으며, 종가 기준으로 추산하면 412억원가량을 사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중 5만 4000원까지 떨어졌으나 반등하며 700원(+1.29%) 오른 5만4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탄핵 뉴스 OTT로 본다… 실시간 중계 시청 ↑

웨이브, 탄핵표결 라이브 시청 2배 예능·드라마 등 시청자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뉴스 시청이 급증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량이 급증했다. 다만 예능, 드라마 등 시청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방문자는 줄었다.

18일 웨이브에 따르면 탄핵표결이 있었던 지난 주말(14일~15일) 라이브 시청량은 평소 주말 대비 2배 수준 늘었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웨이브가 중계한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뉴스 콘텐츠 시청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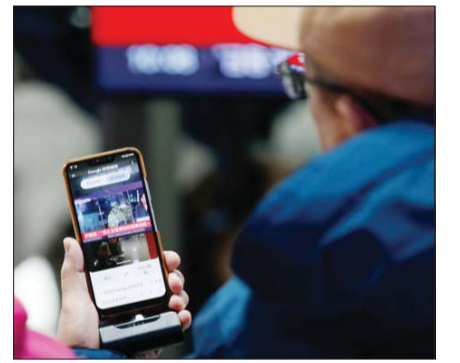
OTT는 최근 실시간 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TV 대신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OTT, 유튜브 등으로 뉴스, 스포츠 등 실시간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 4일 지정 전후로는 웨이브의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후에도 라이브 채널 이용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티빙 역시 지난 14일 인기 톱 20위 콘텐츠 가운데 상위 5위 내에 채널A 뉴스특보와 JTBC 채널이 올랐다.

다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OTT 방문자 수는 감소했다. 드라마, 예능 등 시청이 줄어들었다.

이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 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2528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지난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 대합실에서 중화권 이용객들이 계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 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쿠방플레이는 감소 폭이 더 컸다. 1일 87만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 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 3479명으로 떨어졌다.

이 밖에 디즈니 플러스는 1일 38만 5090명에서 3일 31만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챠는 1일 6만8605명에서 3일 6만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뉴스 시청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달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로 OTT 방문자 수는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행안부, 내수진작·체감경기 개선 총력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적극 추진

정부와 지자체단체가 탄핵 정국 등 어려운 국경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수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지역 내수 활성화를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 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과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

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 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 경기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지자체의 행사·축제를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1

권성동 “개헌·탄핵 철회” vs 이재명 “국정협약체 참여 촉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회동

지속적 협의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권성동,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강조
이재명, 헌정 질서 복귀 가장 중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것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개헌과 정치공세적 탄핵 중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여당의 국정안정협약체 참여를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오어 낫팅(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약체

에 참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 직무대행은 제가 제안 드린 ‘국정안정협약체’에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단끼리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창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노심초사하다 보면 본인도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공개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조속히 논

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이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정례회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도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여야가 협의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약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의원 총회를 거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협약체 불참 입장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했다’는 질문에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가진 견해들을 전달했고, 의총을 거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만큼 일하는 국회, 상황 수습의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직무대행의 개헌 제의에 대해 이 대표는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도 경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선출... 與 불참 속 의결

현재 9인 체제 복원, 인청특위 출범
여당의 협의·회의 불참 갈등 심화
임명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

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못 헌법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최연장자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 대신 박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광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광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

로 논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

尹 ‘내란수괴 수사’ 급물살...헌재, 4개월 내 결론 낼 듯

법리 다툼 적어 신속 탄핵심판 가능성
수사기간 총돌, 조율 필요성 제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경찰(공조수사본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에 나선 상황이며, 윤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월에 늦어도 4월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양 갈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이라도 수사 기관 간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뉴스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불출석할 경우,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소환장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2차 소환 통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21일 나와 조

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다투어 1, 2차 소환장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2~3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 각 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

근·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입장인데, 전날까지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기형적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 기관들의 주도권 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 수사 기관들이 저마다 수사 주체를 자처하고 나설 때부터 예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일찌감치 120여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키며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다. 15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군검찰과 손을 잡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에 관여한 다수의 군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같은 달 8일 독립수사기관임을 강조하며 사건을 넘기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다. 상당수 수사 대상자가 겹치는 데다 혐의 내용도 비슷한 사건에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뛰어든 것이다.

중복 수사, 수사 기관 쇼핑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됐지만, ‘교통정리’는 윤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현실점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하는 공조본이 꾸려졌지만, 검찰은 제외됐다.

서예진 기자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조주완 “앞으로 ‘질서·규칙 없는 치열한 경쟁’이 표준될 것”

LG전자 ‘CEO 편 토크’

내년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 방향 공유

세계경제, 지정학 시대로 변화
中 성장에 구조적 경쟁력 확보
생산성·업무효율성 전략 ‘재창조’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노멀)이 될 것이다.”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올해 마지막 ‘CEO 편 토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토크는 조 사장이 취임 후 구성원들과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조 CEO는 이날 ‘지속성장을 위한 리인벤트(REINVENT, 재창조),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를 주제로 내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F.U.N. Talk’를 열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LG전자

이번 주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재창조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영환경 대응 전략 공유

조주완 CEO는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정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노멀)”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中기업 적극 대응 “원가 경쟁력 확보 할 것”

조주완 CEO는 중국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

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 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재창조’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사장은 지난 3년간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는 자세를 갖자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은 “팬데믹 이후 저가상품 가격 16.4% 올라”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 ‘273만7000명’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공식품 81개 품목 대상으로 조사
고가상품 가격 5.6% 상승에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상품의 경우 마진이 작아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고스란히 전가된 영향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Cheapflation)과 인플레이션 불평등’ BOK이슈노트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공식품에 속하는 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팬데믹 이후, 저가상품 16.4% ↑

조강철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 저가 상품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 조사기간 중 저가상품의 가격은 16.4% 상승한 반면 고가상품의 가격은 5.6%에 그쳤다.

예컨대 라면의 경우 일반 라면과 자연 식재료만 사용한 라면 등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팬데믹 이후 저가 상품인 일반 라면의 값이 자연식재료만 사용한 라면보다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

저가상품의 마진이 작아 팬데믹 이후 오른 원자재 비용이 고스란히 더해진 영향이다.

조 차장은 “칩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급등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기간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만, 특히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 체감, 저소득층이 더 커

특히 칩플레이션은 가계 소득계층 간 물가의 격차를 확대시켜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예컨대 라면의 경우 저소득층은 일반 라면을, 고소득층은 자연식재료만 사용

한 라면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과 고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하위 20%의 저소득층 누적 실질물가상승률은 13%로 집계됐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11.7%인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가상품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물가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저가상품에 대한 지출이 적어 물가 상승분이 적게 반영됐다.

이날 조 차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시기에 칩플레이션이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이 더 큰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내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용부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전년 대비 0.5% ↑... 조직률 0.1%p ↓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조합원 수 272만2000명에서 1만5000명 증가한 27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에서 13.0%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하면서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162명 ▲민주노총 108만6618명 ▲미가맹 47만97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한국노총은 3만8343명이 증가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현대차, GM·웨이모 등과 경쟁력 강화 모색

» 1면 ‘中 BYD 세계 질주...’서 계속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자율주행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재 완전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차량을 운행 중이다. 현대차는 웨이모의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해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그룹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달 24일 일본 도요타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수소를 얘기해서 같이 좀 잘 협력하려고 한다”며 토요타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와 닛산이 합병으로 얻을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닛산은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양사의 미래 사업 성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와 닛산의 합병 목적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술 공유,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서도 “이들 기업의 합병 시너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현대와 닛산은 내년 상반기 기준 이륜차 이익 비중이 44%에 달하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토요타에 필적할 만큼 강하지만 대형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 없는 것이 단점이다”며 “닛산은 전기차 가장 먼저 상용화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기술발전의 미비로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무탄소 에너지 확대되면 59兆 파급효과”

(2033년까지)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확정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59조 원에 달할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력사용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김보현號... “수익 극대화로 건설업 위기 돌파”

내실경영·리스크관리로 위기타개
스마트건설·신사업으로 동력확보
수평적문화·협업 100년기업 도약
글로벌시장 다각화로 경쟁력 강화

김보현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실경영 기조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여 당면한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튼튼한 대우건설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해 250여명의 임직원과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대표는 스마트건설과 신사업 진출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업계를 선도하



지난 17일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개최된 대표이사 임·취임식에서 김보현 사장이 대우건설 사기를 흔들고 있다. /대우건설

겠다”며 “뿐만 아니라 건설이외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대표는 “대우건설이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팀·본부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 최우선 문화를 강조하며, 정성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하자고 당부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는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 인수합병(M&A) 과정을 총괄하며 두 회사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앞으로 김보현 사장의 리더십 아래 전 직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더욱 우수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전임 백정완 대표이사의 임기도 열렸다. 백 전 대표는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에 편입되고 3년을 이끌어왔다.

백 전 대표는 이임사를 통해 “40년 동안 몸담아 온 대우건설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대우건설은 끊임 없는 도전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 더 어려움 앞에서 하나로 뭉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우건설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정 회장과 김 신임 사장이 발맞춰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핵심 3대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해 사업포트폴리오의 다각화·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대표는 1966년생이다. 공군 준장

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 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지난 2022년 중흥그룹 편입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했다. 2023년, 2024년에는 총괄부사장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외 현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당초 백 전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올해 실적이 부진한데다 내년 건설시장 역시 전망이 어두운 만큼 한 발 빨리 신임 대표이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 2조 5478억원, 영업이익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67.2%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 건설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신임 대표이사 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민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방은행장 연임 여부 촉각... 안정 속 성장전략 주목

전북·광주銀, 현은행장 연임 확정
iM뱅크·부산·경남銀도 연임 우세
경영환경 악화에 ‘안정’에 방점

지방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7일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연임을 확정하는 가운데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겸 DGB금융그룹 회장도 이달 말 겸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내년 3월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현 은행장인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각 1년이다. 앞서 4대 은행 가운데 3곳(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쇄신’을 이유로 은행장 교체에 나선 가운데, 두 은행은 ‘안정’을 택한 모습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이 임기를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지속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두 은행 모두 임기 내에 실적 개선 및 수익 다각화에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 지난 11월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3번째 연임을 확정하면서 ‘김기홍 체제’에서 임명된 두 은행의 임지도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현 은행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만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기존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소매금융 취급 확대를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인

터넷 뱅킹과의 연계 상품 출시 등 외연 확대를 통한 수익 모델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말에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황 은행장은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전략 연속성을 위한 연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최근 적극적인 영업망 확대 전략

을 이어가고 있다. iM뱅크는 올해 하반기에만 기존 출점이 없었던 지역에 3곳의 점포를 신규 출점했고, 오는 2027년까지 11개의 점포를 추가 출점할 계획이다.

황 은행장이 시중은행 전환 이전부터 영업 확대 전략을 설계해온 만큼, 시중은행 전환 직후인 현 상황에서 새 은행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3월에 첫 임기를 마치는 방성빈 부산은행장 또한 임기를 이어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상반기에는 부산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여파로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4년 만의 경쟁 입찰이 벌어진 지난 9월 부산시 금고 입찰에서 금고 수성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뚜렷하다.

예경탁 경남은행장도 내년 3월 첫 임기를 마친다. 경남은행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최근 경남은행이 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내부통제 강화가 변수로 남았다.

경남은행은 최근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부동산 PF 관련 금융사고로 6개월의 신규 PF대출 취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가 예 은행장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던 만큼, 예 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이 호실적 속에도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로 ‘쇄신’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교체에 나선 반면, 각 지방은행은 큰 논란 없이 양호한 경영을 이어온 은행장들의 연임을 통해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관측했다. /안상민 기자 asj1231@

지역화폐 꼭 잡은 지방은행, 체크카드 등 취급형태 다양화

사용 번거로운 종이 상품권 대체
카드형·페이앱 등으로 편의성 ↑

각 지방은행이 위탁 운영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매 및 사용이 번거로운 종이 상품권을 대신해 카드형 상품권, 간편결제(페이앱) 등으로 취급 형태를 다양화해 기존 사용자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 유치도 겨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지방은행

(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지역화폐를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는 7곳(부산·광주·대구·포항·울산·창원·전주)이다. 해당 7개 지역 내에서 종이 상품권, 선불·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유통된 전체 지역화폐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유가 증권(상품권)이다.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대다수 지역화폐는 종이 상품권으로 출시됐다. 디

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구매와 사용이 번거로웠다. 특히 출장·관광 등을 이유로 지역에 방문한 경우는 구매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요 지역화폐 위탁운영사인 각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 및 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취급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기존 사용자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관광객 등 신규 수요도 합

계 겨냥했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을 운영한다. 간편결제와 카드를 지원하고, 월 30만원 이내의 결제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비율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7% 이내로 적용된다. 가맹점별 할인율은 부산은행 동백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시 지역화폐 ‘울산페이’와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을 취급한다. 울산페이는 간편결제와 카드를 지원하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7%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누비전은 디지털 상품권과 종이 상품권으로 발급되며, 월 20만원 한도 내에

서 7%의 할인을 제공한다.

iM뱅크는 대구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를 운영한다. 대구로페이는 간편결제만 지원하지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선물 카드를 제공한다. 한도는 월 30만원, 할인율은 7%다.

또한 포항시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도 iM뱅크가 취급한다. 간편결제 및 체크카드를 지원하며 구매 한도는 연간 800만원, 할인율은 7%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를 취급한다. 충전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운영되며 충전 한도는 월 50만원, 할인율은 7%다.

/안상민 기자

내년 철광석 가격 하락 예상...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중 철강 수요부진에 생산량 감소
철광석 톤당 90~100달러 예상
현대제철 등 업계 원가 절감 등
수익성 개선 자구책 마련 집중

내년도 철광석 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되면서 철강사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글로벌 금융기업 ING에 따르면 2025년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원인으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점이 꼽힌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철광석 수입국인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올해 현재까지 철광석 평균 가격은 1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톤당 110달러로 지난 2023년과 2022년의 119달러, 120달러 대비 하락했다.

ING은 내년 철광석 가격이 1분기 제철소들의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나, 상승 폭은 제한적이며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분기 철광석 가격 또한 90달러까지 떨어지고 연간 평균 95달러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시장에서도 철광석 가격이 1톤당 90~1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고로사들의 생산량 감소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고로 조강 생산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2억7000만톤을 기록할 것

으로 추산된다.

철광석 수요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철광석 공급은 확대돼 가격 하락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철광석 생산량은 올해 대비 3600만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과 호주 등 주요 광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생산을 줄이지 않는 점도 철광석 시세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2위 조강 생산국인 인도의 경우 원료를 자급자족하고 있어 철광석 해상 물동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광석 가격 하락은 생산 비용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제품 가격 인하 압력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고객사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판매가격 인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철강사들은 상반기에 조선업계와

후판 가격 협상 과정에서 인하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전기료, 인건비, 해상 운임 등 원자재 외 제조 비용이 오를 점도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철강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요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까지 고정비 줄이기 등 원가절감에 나서며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월 직원들에게 포항 2공장 제강, 압연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도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된 중국 스테인리스강 생산법인장 가항포항불수강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제품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야 하나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수요 부족으로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 'AI 홈' 탑재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 통해
스마트싱스 연결 가전 원격 제어
AI 비서 빅스비로 음성명령 실행

삼성전자가 내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AI 홈'은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AI 홈' 기반의 고도화된 연결성을 통해 가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 하에 다양한 스크린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AI 홈' 탑재 스크린 가전은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와 7형 터치스크린을 각각 탑재한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다.



'AI 홈'이 탑재된 삼성전자 스크린 가전 신제품과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dl/삼성전자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사용자는 집안의 연결된 가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맵 뷰'를 통해 연결된 가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제품별 모드 변경, 온도 설정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활용해 ▲콘텐츠검색·제어 ▲전화받기 ▲제품 사용 방법 확인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해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거나, 유튜브·스포티파이 앱으로 영상과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다.

패밀리 허브와 9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냉장고는 직접 스마트싱스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도어록, 커튼, 블라인드, 조명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025년형 'LG QNED TV' 신제품 선보

LG전자 무선 AV 전송솔루션 탑재
AI 기술로 화질은 한층 선명해져

LG전자가 18일 2025년형 'LG QNED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최대 4K·144Hz 무선 AV 전송 솔루션 ▲신규 색재현 기술 ▲AI 성능을 강화한 화질/음질 프로세서 ▲최신 웹OS의 AI 기반 맞춤형 고객 경험 등이 특징이다.

처음 공개되는 무선 AV(오디오비디오) 전송 솔루션을 탑재한 'LG QNED evo(86/75/65QNED9M)'는 전원을 제외한 복잡한 연결선을 없애고, 4K 고해상도 영상도 손실·지연 없이 전송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화질은 한층 선명해졌다. '알파8 프로세서'를 탑재해 AI 성능이 기존 대비 약 70% 더 뛰어나다.

AI를 활용해 화면 노이즈를 조절하는 업스케일링 기능과 화면 구역별 HDR 효과와 밝기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는 다이나믹 톤 맵핑 프로 기능, 2채널 음원을 가상의 9.1.2채널로 변환해 풍성한 음향을 구현한 음향 기술 등이 제공된다.

LG전자는 초대형·프리미엄 LCD TV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100형(대각선 길이 254cm) QNED TV(모델명 QNED89A)도 새롭게 선보인다. 40형 대부터 100형 대를 아우르는 QNED TV 풀 라인업을 앞세워 지속 확대되는 초대형 LCD TV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LG QNED TV 전 제품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원본 영상의 풍부한 색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컬러볼륨 100% 인증을 획득했다.

/구남영 기자

항공업계, 연말연시 다양한 할인 이벤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연말 여행객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크리스마스에 이어 연말연시 움츠러든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마지막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초특가 프로모션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 국제선 16개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며, 18일 오전 10시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은 ▲일본 6만4100원 ▲대만 6만9100원 ▲베트남 10만2700원 ▲태국 13만3700원부터며, 탑승 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유럽과 대양주, 일

본, 중화권,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해외 노선을 대상으로 연말세일 할인코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일부 노선과 기간을 제외한 내년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다. 티웨이항공 해외 노선 예약 시 이벤트 페이지 내에 명시된 연말세일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14% 즉시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이달 17일까지 일본 전 노선 연말 특가 이벤트를 선보인다. 탑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특가 할인코드 입력 시 일본 노선 항공권을 최대 4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편도 총액 기준 주요 노선 특가 항공권 가격은 ▲인천~히로시마 5만5800원부터 ▲인천/부산~나리타 8만5100원부터 ▲인천/김포/부산~오사카 10만4100원부터 ▲인천/부산~후쿠오카 8만5800원부터 등이다.

/양성운 기자

LGD, OLED 공정에 AI 도입... 품질 분석 3주서 2일로 단축

'AI 생산 체계' 자체적 개발·도입
품질 이상원인 신속히 규명 가능

LGD디스플레이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생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AI 생산 체계'는 AI가 올레드 공정 제조 데이터 전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AI의 도입으로 공정 데이터 분석 능력은 강화되고 동시에 분석 속도와 정확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AI 생산 체계는 복잡도가 높은 올레드 제조 공정에 특화됐다. LG디스

플레이는 올레드 제조 공정에 필요한 도메인 지식(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AI에 학습시켰다. 이를 활용하면 올레드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많은 이상 원인의 경우의 수를 자동 분석하고 솔루션까지 도출할 수 있다.

올레드는 140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만 가지의 설비 데이터가 더해져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품에 이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AI 생산 체계'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가능해졌다.

품질의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소요되던 시간도 평균 3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는 엔지니어 개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해 한 정된 계측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AI 생산 체계'를 활용하면 AI가 예측한 최상의 품질 조건에 부합하도록 즉시 전 제품의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동시에 전체 생산 제품 대상 품질 검사도 병행해 이상 여부 체크와 원인 파악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는 AI 도입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임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을 예상했다.

/구남영 기자

AI 기본법, 인권·안전보호 부족 “AI로 피해 받아도 구제 어려워”

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빠져
국방·안보 AI 법 적용 배제 논란
졸속 처리 비판... 이용자 권리 미흡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코앞에 뒀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조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8일 정보인권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처리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해 시민사회가 반대한 AI 기본법안이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 통과했다”며 “AI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마땅한 의무를 부과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19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시킨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은 통과와 동시에 앞서 9월과 11월 형식적인 심사소위 통과로 축소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고, 이로 인해 여러 조항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은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고위험)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방 또는 국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것 또한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구제 절차가 없다”며 “현재 법안으로는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 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 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도입하는 수사 AI의 인권침해 또한 지금 법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또한 AI 기본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결국 저작권자

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결과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해 저작권자가 알 권리를 잃고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하원이 4월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AI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게 하는 사례와 EU가 3월 AI 법을 통해 학습데이터셋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 부분도 있다. 언론단체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도록 한 부분에 대해 “환각현상과 편향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IT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맹비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단순 민원과 신고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는 행정 조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AI 홈으로 스마트 가전 경험 확대

CES 2025서 신제품 대거 공개

삼성전자가 내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AI 홈’은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AI 홈’ 기반의 고도화된 연결성을 통해 가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 하에 다양한 스크린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AI 홈’ 탑재 스크린 가전은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와 7형 터치스크린을 각각 탑재한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다.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사용자는 집안의 연결된 가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맵 뷰’를 통해 연결된 가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제품별 모드 변경, 온도 설정 등을 원격

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활용해 ▲콘텐츠 검색·제어 ▲전화받기 ▲제품 사용 방법 확인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해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거나, 유튜브·스포티파이 앱으로 영상과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다.

패밀리 허브와 9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냉장고는 직접 스마트싱스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도어록, 커튼, 블라인드, 조명까지 제어 가능하다.

아울러 ‘삼성 TV 플러스’ 앱이 기본 탑재돼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가전이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분해 인식하는 ‘보이스 ID’ 기능도 도입돼 ▲개인 일정 확인 ▲구글 사진·영상 보기 ▲스크린 글자 크기 조정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피닉스랩, 의약학 생성형 AI솔루션 런칭

모듈형 검색 증강 생성 적용

SK네트웍스의 투자사인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이 제약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런칭 행사를 열었다.

피닉스랩은 지난 17일 서울시 광진구 위커킬 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된 런칭 행사에서 모듈형 검색 증강 생성(RAG)을 적용한 첫 번째 산업 특화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닉스랩은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및 역량을 보유한 SK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검증, 마켓 테스트를 차례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검증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검색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개인 업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술·투자 업계의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을 바탕으로 AI를 비롯

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와 협력을 이어오며 피닉스랩의 지원 역할을 맡았다. 피닉스랩의 핵심 기반 아키텍처는 모듈러 RAG로, 기업이 A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거대 언어 모델(LLM)의 단점을 보완한 동시에 검색 증강 생성(RAG)에서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기술이다.

피닉스랩은 제약업계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사의 모듈러 RAG를 적용하면 연구 기획 단계에서 논문 및 데이터 검색 과정을 기존보다 최대 80% 이상 개선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문서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케이론을 개발한 것이다.

피닉스랩이 선보인 국내 최초 의약학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 ‘케이론’은 ▲계약 업계 특화 ▲윈스톱 검색 ▲의미 기반 검색 ▲워크플로우 자동화 ▲주요 언어 지원 등 5가지 특장점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초고속·초고용량 SSD로 데이터시장 공략

SK하이닉스

QLC 기술 기반 SSD 라인업 강화
AI 데이터센터용 61TB SSD 공개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군을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18일 서버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2.5형 SSD인 ‘PS1012 U.2’ 61TB(테라바이트)를 공개했다. SSD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드는 데이터 저장장치를 말한다.

PS1012는 최신 PCIe 5세대(Gen5)를 적용해 4세대 기반 제품보다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32GT/s(초당 기가트랜스퍼)에 달하며, 순차 읽기 성능



SK하이닉스가 개발한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 ‘PS1012 U.2’ /SK하이닉스

은 이전 규격 제품 대비 2배 수준인 13GB/s(초당 기가바이트)다. 또 이 제품은 OCP 2.0 버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AI 고객들의 여러 데이터센터 서버 장치와 호환성을 높였다.

회사 측은 PS1012의 개발로 균형 잡힌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어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업계 2위 업체

로, 자회사 솔리다임과 함께 고용량 낸드 기술인 QLC(워드레벨) 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지난달 세계 최대 용량인 122TB의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선보였다. 이어 SK하이닉스도 QLC 기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 샘플을 연내 글로벌 서버 제조사에 공급해 제품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분기에는 제품군을 122TB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eSSD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1월 개발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244TB 제품 개발도 함께 진행해 초고용량 데이터센터용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아이폰 12·13도 통화녹음 가능해요”

LGU+ ‘익시오’ 적용 단말 확대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서비스 ‘익시오(iki-O)’ 이용 가능 단말기를 아이폰12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폰14 이상 단말기에 서만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12와 아이폰13를 보유한 고객들도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다.

익시오는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실시간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 및 요약 등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익시오는 출시 이후 열흘 만에 다운

로드 건수 10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출시 한 달만인 지난 7일 기준 다운로드 건수 20만 건에 육박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실상 모든 아이폰 사용자가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익시오는 전체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시오 이용 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 조사됐다. 뒤를 이어 ▲40대 19.4% ▲10대 8.5% ▲50대 이상 8.1%를 차지했다.

/구남영 기자

국민대학교에서 2025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 체육
전공선택이 자유로운
국민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접수기간 : 2024.12.31.(화) ~ 2025.01.03.(금) (인터넷 접수)

국민대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admission.kookmin.ac.kr

[입학상담]
02)910-4123~27
02)910-57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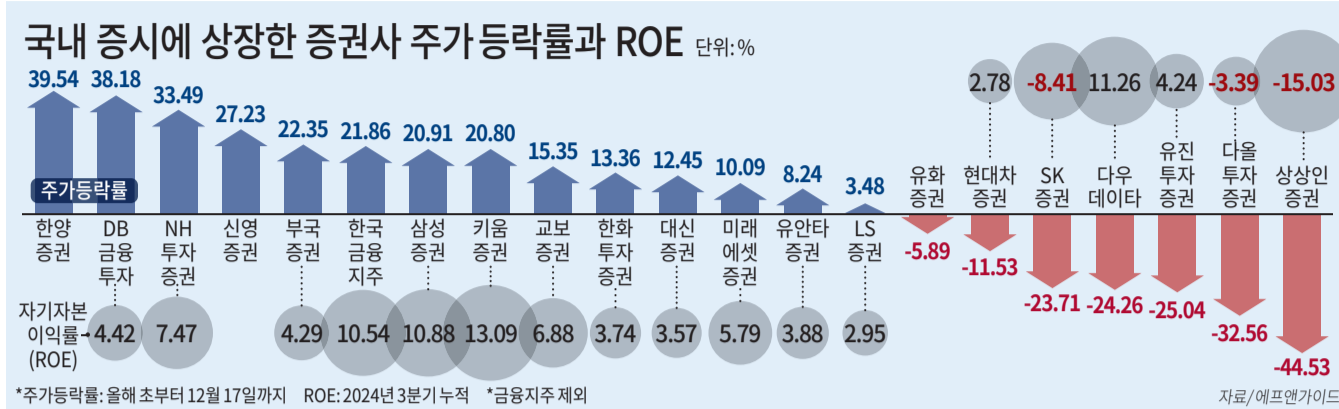
증권주, 밸류업 참여 여부에 '희비'... NH증권 시총 2위 차지

한양증권, 경영권 매각으로 상승밸류 DB금융투자, 중소형사 중 첫 참여 NH투자증권, 주주환원 기초 지속 3개사, 올해 주가 상승률 30% 대

올해 증권 업종의 주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를 제외한 대형 증권사 중 주주환원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였던 NH투자증권은 주가가 급등하며 증권 업종 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고, 중소형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DB금융투자는 중소형사 주가 하락세에서 제외됐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된 증권사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증권사는 한양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순이다. 3개 증권사 모두 올해 들어 17일까지 주가 상승률 30%대를 기록했다.

이 중 한양증권은 올해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 밸리를 펼친 바 있다.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DB금융투자는 지난 9월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 첫 번째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주주환원율 40% 이상 유지 등이 핵심이다. 밸류업 공시 직후였던 6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21.40% 급등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공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자사주 417만주를

매입한 뒤 4월 내 소각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진행된 자사주를 매입·소각이며, 향후에도 주주환원 기초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배당성향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1%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주요 증권사들의 배당성향은 30~40% 사이에 머물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올해 13년 만에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을 재개했는데, 향후에도 자기 주식을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을 포함 시 연간 주주환원수익

률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증권업계 시총 2위로 올라섰다. 연초까지는 삼성증권이 미래에셋증권 다음 순서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 2시 45분 기준 KRX증권 지수 내 시총 순위는 미래에셋증권(4조9986억원), NH투자증권(4조5783억원), 삼성증권(4조2685억원) 순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가 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업계 선도 증권사로서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했던 중소형사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실적과 비례하게 움직이는 만큼 증권사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현대차증권은 당일에만 주가가 13.07% 빠졌다. 이후 주주들의 민심이 악화되자 대주주사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등의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전량 참여와 '밸류업' 본격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투심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도 유상증자 발표 전까지 8000원대였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7000원 선에 머물고 있다.

올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은 SK증권과 다음투자증권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두 증권사와 더불어 상상인증권도 ROE 측면에서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연초보다 20~40%씩 떨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확고한 양강' ETF 시장... 중위권 경쟁 치열

삼성-미래에셋운용 양강 체제 3위 놓고 KB-한투운용 경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양강 체제 속에 3위를 놓고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운용사들은 ETF 관련 조직을 재 정비, 리브랜딩에 나서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내년에는 점유율 순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ETF 점유율 상위 5개사는 삼성자산운용(38.48%), 미래에셋자산운용(36.10%), KB자산운용(7.71%), 한국투자신탁운용(7.40%), 신한자산운용(3.10%) 순이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굳힌 가운데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3, 4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년 대비 점유율을 2.57%포인트 끌어 올리며 KB자산운용과의 격차를 1%포인트 이내(0.31%포인트)로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빅테크, 반도체 등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형 ETF를

<16일 종가 기준 운용사 ETF 점유율 순위>

운용사	순자산총액	점유율
삼성자산운용	66조4986억	38.48%
미래에셋자산운용	62조3813억	36.10%
KB자산운용	13조3203억	7.71%
한국투자신탁운용	12조7887억	7.40%
신한자산운용	5조3527억	3.10%
키움투자자산운용	3조6468억	2.11%
한화자산운용	3조4086억	1.97%
NH아문디자산운용	1조6621억	0.96%

/금융투자협회

출시하며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3위권 경쟁은 내년에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자산운용은 지난 7월 브랜드명을 기존 'KBSTAR'에서 'RISE'로 변경하며 전략 개편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내년에도 유망 투자 테마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상품 개발, 운용 효율성, 마케팅의 삼박자를 균형있게 유지하며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

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ETF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8위권 중위권 운용사들 사이에서도 리브랜딩과 조직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점유율 순위 변동 등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7월 'ARIRANG'을 'PLUS'로 리브랜딩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내년 1월 기준 ETF 브랜드 'KOSEF'를 'KIWOOM'으로 변경하고, 액티브형 ETF 브랜드 '히어로즈'도 동일 브랜드로 통합할 예정이다.

점유율 8위 NH아문디자산운용은 ETF 전문 조직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ETF투자부문을 신설하고 ETF투자부장에게 한수일 채권 운용부문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김승철 패시브솔루션본부장은 ETF 투자본부장으로 새로 선임됐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ETF 투자 자산의 다양성 증가와 연계계좌의 ETF 관심도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ETF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운용사들 간의 차별화된 ETF 상품 경쟁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항공사 대형화로 노선·서비스 확대 전망"

삼일PwC,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국내 항공운송산업 변화·영향 살펴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정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통합으로 글로벌 10위권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면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노선 재분배와 신규 노선 개발로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 운항 효율성은 높아질 것인 전망이 나왔다.

18일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항공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양대 국적기 통합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나타나는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항공사 대형화가 이뤄지며, 여객 부문에서는 제공 노선 및 서비스 확대를 뜻하는 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사 산하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에 따라 LCC 내 점유율 1위(41%)로 등극하면서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보고서는 "LCC들이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항공사 통합 및 인수합병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항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불필요한 좌석 가격 경쟁 감소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개선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 약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허정운 기자

신한투자증권, AI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

SOL증권 MTS서美 상장종목 등 추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신한투자증권 연관도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기업 정보 및 IR 보고서상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상장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미국 상장종목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투자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과 유사한 동종산업의 미국 상장기업 투자를 쉽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증권 MTS내 국내 종목의 현재가 정보 탭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는 LSEG(런던증권거래소그룹, 구 레피티티브)가 제공하는 로이터뉴스를 미국종목에 한해 종목별 뉴스 탭과 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번역 및 요약은 AI 스타트업 업체 웨이커와 신한투자증권 뉴스 요약 AI가 함께 가공해 원문과 함께 제공된다.

/신하은 기자

ATS 출범해도 증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동일

(대체거래소)

금감원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ATS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KRX)의 증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10분간 ATS 거래는 중단된다. 이는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

자업계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ATS 출범·운영과 관련해 각 유관기관은 ▲ATS 출범에 따른 시장 세부 운영 사항(금감원) ▲거래소 공시운영 및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방안(한국거래소) ▲ATS 도입에 따른 주식기관 결제 실무(예탁결제원) ▲모의시장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넥스트레이드) 등의 주제로 설명이 나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상권·트렌드 등 꼼꼼 분석... 소상공인 경영환경 향상 지원

내년 '소상공인 365' 정식서비스
소진공,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국세청과 940만개 사업자정보 담
상권지도·배달 현황정보 등 확인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카페, 음식점 등 예비창업자가 성공 창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새해에 본격 선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1일부터 '소상공인365'를 정식 서비스한다.

이는 2006년부터 18년간 제공하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경영진단,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특히 국세청과 협업체 전국 940만개 사업자 정보를 관련 플랫폼에 담았다.

데이터 종류도 42개, 11종(상가, 유동인구, 매출 등)에서 64개, 22종(POS, 배달 등 추가)으로 늘렸다.

소진공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연회'를 개최했다.

소진공 빅데이터실 송하령 실장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365'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올가이드, 소상공인대시보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간단분석, 상세분석 등 다양한 지역·업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인구, 매출에 따른 상권지도 및 배달현황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의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회식 상권, 배달 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의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송하령 실장은 "민간도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공신력있는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에는 하루 1만명,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365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용객은 1만7000~1만8000명까지 늘고 있다.

송 실장은 "내년에는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정책 이용자들이 정보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대표번호를 '1533-0100'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신규 지원을 위해 예산 2037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배달료 지원은 O2O플랫폼사, 택배사 및 직접 배달·무등록배달원을 활용하는 꽃집,

수퍼, 떡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용자 '상생성장자금' 1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외에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중국 상하이에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열어 해외판로 확대 지원도 추가로 나선다.

박성호 이사장은 "소상공인365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평적 연대를 확대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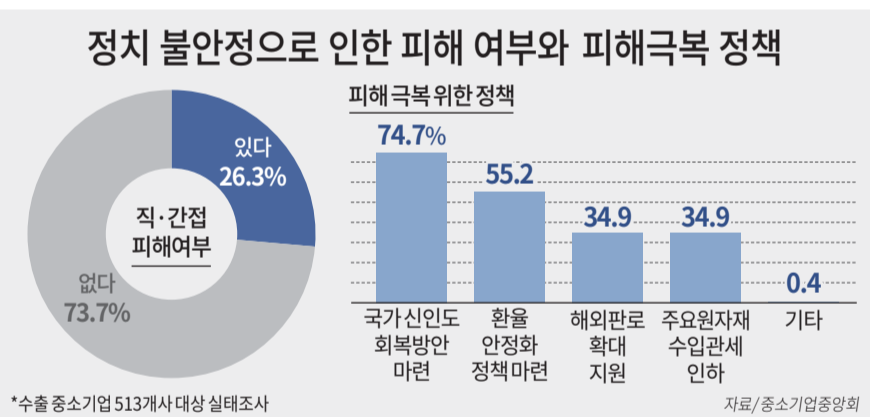
수출 中企 10곳 중 3곳 "비상계엄령 이후 피해입어"

중기중앙회, 513곳 실태조사
47.4% '계약 지연 및 감소·취소'
기업 63.5% '향후 피해 가능성'

"3일 비상계엄령 이후 바이어가 있는 나라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계약을 미루자는 요청이 왔다.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바이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장은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부산에 있는 A제조사)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 정치 상황 불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 실시해 1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3%가 계약사태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계약 지연 및 감소·취소'가 47.4%



로 가장 많았고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 (23%),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 (22.2%)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아직 피해는 없지만 '향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였다. 이는 '피해 가능성이 없다' (36.5%)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복 청구에 있는 B제조사 관계자는 "논의 중이던 계약에 대해 12월3일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여건으로 바이어들이 계약시 선지급금 지불을 꺼려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사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 불확실성 예상 지속 기간에 대한 '6개월 이내'가 49.3%

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1~2년 간 지속 (32.2%) ▲2년 이상 장기화(8.2%) ▲올해까지만 지속(7.4%)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피해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 해명한다'는 답변이 51.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새로운 바이어 발굴 노력' (13.3%), '피해를 감수하고 계약 대안 제시' (8.8%) 등이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변도 25.5%로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국가 신뢰도 및 이미지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파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며 "급격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국회, 정부,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삼성벤처투자 등 총 5곳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우리벤처파트너스·교보증권, 삼성벤처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엔에이치벤처투자가 포함됐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해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지원하는 팁스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한다. 2021년 11월부터 투자와 기술지원 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프로그램 강화에 따른 운영사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기존 10개 내외에서 내년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운영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엔 12대 국가전략기술, 10대 초격차 분야, 탄소중립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투자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사업 지원 역량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 컨소시엄 중 우리벤처파트너스, 교보증권 등은 금융 솔루션 제공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스타트업 팁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기업 발굴과 육성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기보,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추가 지원

하나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특별출연금 8억, 160억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에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청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장 및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총 16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해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청년문간 조합에 2.7억 상당 기부

스타트업 220개사 구성 모임

청년창업 교류회(JBN) 소속 스타트업 73개사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참여 확대를 위해 기부활동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동남부지부와 청년창업 교류회가 1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교류회는 중진공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스타트업 220개사로 구성된 모임이다. 소속 기업들은

중진공을 중심으로 창업 관련 정보와 경영 노하우 공유, 비즈니스 매칭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17년 시작한 '청년밥상문간'을 통해 저렴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과 청년 영화제를 통해 창의적인 도전과 세대 공감을 지원하며 청년들과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기후변화 대응으로 농촌 재구조화 쌀 산업 개편·규제완화 지속 성장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산업·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전환 신규 재배지 발굴·생산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 막을 것"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적정 재배지를 모색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해 농촌활력 증대에 나선다. 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을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한 청년 농업인의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서는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

법인을 활성화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씨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139개 시군)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탄소중립 위한 환경기술에 390억 투입

환경부,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정부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총 390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 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서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39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저류담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제조 유통순환 기술' 등 4개 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 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25년 2월에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3월까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과제를 확정 후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첨단 녹색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확대 개정 권고

권익위, 장애인 실질적 이동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의 차량 등에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신규·변경·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차고지증명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포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저소득층 10명 중 7명 빈곤 탈출 못했다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저소득층의 69.1%, 1분위 소득 유지 청년층, 저소득 탈출 비율 가장 높아

지난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022년에도 저소득층에 계속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을 유지했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및 국제성 소득자료와 연계해 올해 처음 공표됐다.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21년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벗어났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위 20%인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18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에 머문 비중은 2020년 한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구간별로는 10% 미만 상승한 사람이 22.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청년층이 68.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중장년층 63.8%, 노년층 52.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소득금액이 50%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다.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로 엘리베이터 범죄 감시한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또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

㈜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

을 돕는 시스템이다.

삼중테크(주)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 또 룰루메디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엘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성신!
BEYOND
THE BEST



성신이 잇기에 세상이 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리더십은 연결의 능력!
성신여대는 전세계 인재들과 한 팀이 되어
다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악과 이가연
국어국문학과 마르첸코 마리아
중국어문·문화학과 조윤솔

202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신입학 모집

정시모집 | 2025.01.01.(수) 11:00 ~ 01.03.(금) 18:00

추가모집 | 2025.02.21.(금) 11:00 ~ 02.24(월) 18:00

입학관리실 | ipsi.sungshin.ac.kr 입학상담 | 02-920-2000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서울 남북권 가로지르는 경전철 민투심 통과로 16년 만에 '탄력'

새절역~서울대입구역 15.6km 연결
출퇴근 시간↓ 지역균형 발전 기여
1.5兆 투입... 2026년 착공 예상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교통 소외 지역인 서남·서북권을 잇는 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 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 시설 취약 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해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와 실시 협약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해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 여건으로 인해 일부 건설 출자자가 탈퇴했다"면서 "시는 사업 시행자가 신규 건설 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실시 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의 4.24%가 인상돼 기존 계획보다 642억원 늘어난 1조578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 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윤중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하게 됐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청년 예비인턴 80명 직무경험 쌓아

서울시, 39개 기업에 청년인턴 배치

서울시는 '청년 예비인턴' 사업을 통해 39개 기업에 젊은이 80명이 배치돼 직무 체험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예비인턴은 학교·학점보다 직무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취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전부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경영·총무·인사, 마케팅·홍보, IT·개발을 포함 다양한 직무 분야에 배치된 80명의 예비인턴이 지난 8월 1일부터 올 12월 11일까지 서울교통공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등 39개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았다. 시는 청년인턴의 직무 능력이 향상됐고, 사업 만족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예비인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알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나누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과 기업이 활동 성과와 참여 소감을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최민창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직렬을 정하지 못하던 중



서울 청년 예비인턴 성과 공유회. /서울시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공공기관은 경직된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 문화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인턴 경험을 마치고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는 청년과 신입 직원을 찾고 있는 기업을 위한 매칭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취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구직 활동에 뛰어난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 확대를 위해 예비인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10가구 주거환경 개선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사업 '맞손'

서울시는 이달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혜 가구를 선정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수리 사업비 2억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반지하·옥탑방 등 최소 주거 면적(2인 가구 기준 26㎡) 이하 저층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10가구다. 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가운데)이 17일에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김희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우),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열·방수와 같은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후원 기업·비영리 단체와 주거 복지시각 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 캠퍼스 개관

서울시, 연간 110명 인재 양성 계획

서울시는 18일 은평구 녹번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 캠퍼스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신기술분야 실무 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은평캠퍼스는 연면적 908.55㎡, 지상 3~4층 규모에 강의실과 복합공간 등을 갖췄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웹 프로그래밍 교육과 디지털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정 등을 제공해 연간 11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의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은평 캠퍼스까지 총 19개 인재 양성 기관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평균 취업률은 75%, 교육 만족도는 89%에 달한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광양시,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6029억 반영

올해 5749억 대비 280억 늘어

광양시는 2025년도 정부예산과 전남도 예산에 국도비 6029억 원을 반영시켜, 역대 최초로 국도비 6000억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2024년도 5749억원 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과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인화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국회,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정인화 시장이 직접 기재부를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해 정부 예산

안에 4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를 한창인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에게 사업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 ▲광양항 광역 준설투기장 1329.8억원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전남 연수원 80억 원 ▲광양(Ⅰ) 노후관 개량 122.7억 원 ▲광양(Ⅱ) 신·구노후관 개량 63.9억 원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66.2억 원 등을 확보했다.

주요 도비 사업으로는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9.5억 원 중 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5억 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6억 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20억 원 등을 확보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서울에너지공사

황보연 신임 사장 임명



서울시는 18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에 황보연 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신임 사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서울시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황보연 신임 사장이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리더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 방안 논의

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 자문받아

경기도가 19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논의하는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총 3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양=유진제 기자 yujin@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

**제약·바이오 업계
“규제 기관 관리감독 더 강화해야
정치적 이슈·생물 테러위협 가중”**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독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독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독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독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

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선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독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GV 육개장사발면 팝콘.

CGV-농심 협업 ‘육개장사발면 팝콘’

CGV는 농심과 협업해 인기 메뉴인 육개장사발면과 콜라보한 신메뉴 ‘육개장사발면 팝콘’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육개장사발면 팝콘’은 국내 컵라면 매출 1위 제품인 육개장사발면의 얼큰한 소고기 국물 맛을 그대로 재현한 CGV만의 자체개발 시즈닝과 고소한 팝콘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팝콘 라지 사이즈를 주문하면 육개장사발면 팝콘과 다른 팝콘 맛을 선택해 반반팝콘으로 즐길 수도 있다. 팝콘 개발자 추천 맛인 ‘육개장사발면 맛+달콤한 맛’으로 선택하면 중독성 강한 단짠 조합으로 맞출 수 있다. 팝콘 외에도 육개장사발면 캐릭터인 농이를 활용한 라면스프 모양의 파우치를 비롯해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육개장사발면 팝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육개장사발면 팝콘과 탄산음료로 구성된 ‘육사발 팝콘세트’를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CGV 모바일 앱의 이벤트페이지에서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베델 하이츠 빈야드 등 美 오리건 와인 선보

**수입 와인, 평론가들에 높은점수
극소량만 수입해 빠른 완판 예상**

국내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나파 밸리’ 만큼이나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오리건(Oregon)’ 지역 대표 와인너리 ‘베델 하이츠 빈야드’와 ‘쉐 와인셀러’의 제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리건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특징은 포도 성장 기간에 제약을 주어 고품질 소량생산을 지향한다. 이번 하이트진로가 수입한와인은매 빈티지마다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제품이면서 수입된 양도 극소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가 오리건 지역 대표 와인너리 ‘베델 하이츠빈야드’와 ‘쉐 와인셀러’ 제품을 선보인다. /하이트진로

먼저, ‘베델 하이츠 까스틸 이스테이트 샤르도네’와 ‘베델 하이츠 까스틸 이스테이트 피노 누아’는 각각 샤르도네 품종 100%, 피노 누아 품종 100%이며 최고 품질의 배럴(와인을 숙성하고

보관하는 오크통) 와인만을 선정해 소량 생산 한다. 베델 하이츠 와인 중 유일하게 가족의 이름을 붙인 아이론 와인으로 국내에는 각 60병만 입고됐다. ‘베델 하이츠 이스테이트 피노 누

아’는 1984년에 출시한 베델 하이츠의 플래그십 와인으로 2024년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선정됐다. 딸기, 라즈베리, 오렌지 껍질과 같은 과실향과 야생꽃 향이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탄닌의 질감이 특징이다.

함께 선보이는 ‘쉐 와인셀러’는 닥 쉐와 그의 아내 디어드레 쉐가 1989년 압힐 카운티 언덕에 위치한 포도밭을 매입하며 시작했다. 그들이 매입한 부지 전체는 ‘쉐 빈야드’로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생산하며 최상위 품질의 포도 20%를 쉐와인셀러의 와인으로 생산, 나머지 80%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유명 와인너리들에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바, 美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 쿠광, 뷰티 신제품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2400억 출자... 조합 결성해 운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자가 조합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투자를 진행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크로마는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춘 드 노보 단백질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의약품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설명이다. 드 노보 단백질은 기존에 존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하는 단백질 서열이나 구조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혁신 바이오벤처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신약개발 성공 시 위탁생산(CMO) 등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너레이트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너레이트의 장점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역량을 활용해 개발, 제조, R&D 분야 협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의약품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신상공개관에 ‘선런칭’ 코너 마련

쿠광이 뷰티 ‘신상공개관’에 신제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런칭’ 코너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쿠광은 이를 기념해 이달 22일까지 10개 브랜드 1300여 개 제품을 최대 78%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쿠광에 따르면, ‘신상공개관’ 내 입점 브랜드 신제품을 타 유통채널보다 먼저

쿠광에서 공개하는 ‘선런칭’ 코너를 신설한다. 유통업체 가운데 쿠광에서 처음으로 인기 브랜드가 공들인 신제품을 먼저 구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뷰티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는 쿠광 측 설명이다.

앞서 쿠광은 지난해 10월부터 입점 90일 이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신 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전문 테마관 ‘신상공개관’을 운영해 왔다. /안재선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홈플러스대란’ 행사

홈플러스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마지막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사 대표 연말 할인 행사인 ‘홈플러스대란’을 시작한 지 약 3주간 점포별 매출이 최대 118% 증가했다. 특히 고객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꼭 필요한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AI 메가핫딜’ 매출은 최대 300%까지 올랐다.

이에 홈플러스는 마지막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 ‘AI 메가 핫딜’에서는 행사 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Brix 제주 밀감(1.3kg)’, ‘항공직송체리(450g)’, ‘단단과프리카’를 모두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김호영 맞손 셰프컬렉션 시즌3 출시

CJ제일제당의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스타 셰프의 맛을 담은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한식 파인 다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미쉐린 스타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다. 이번에 선보인 세 번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미국 뉴욕에서 한식 파인 다이닝 ‘주아(JUA)’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영 셰프와 함께한다. 주아는 반찬과 죽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메뉴와 재료에 숯과 훈연의 맛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 파인 다이닝으로 3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김 셰프가 협업한 신제품은 ‘전복 관자 들개 새래기찜’, ‘파리고추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LA갈비 스테이크’, ‘청양크림갈국수’의 3종이다. LA갈비, 시래기, 파리고추, 대파 등 익숙한 재료에 모던 아메리칸과 프렌치 기법을 더해 한식을 색다른 매력으로 풀어냈다. /신원선 기자

“함께하는 온기 나눔”... GS칼텍스, 난방유 나눔 봉사

20년째 이어지는 연말 봉사
구룡마을 독거노인 위한 직접 배달
에너지 위기, 저소득층 지원 앞장

GS칼텍스가 연말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독거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난방유를 배달했다고 18일 밝혔다.

GS칼텍스는 난방유 나눔 봉사활동과 더불어 김장 나눔, 난방용품 및 생필품 지원 등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도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연말에도 서울 본사, 여수공장, 대전 기술연구소, 부산지사 등의 임직



GS칼텍스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구룡마을을 찾아 난방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GS칼텍스

원들이 난방유 지원, 김장 담그기, 월동용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12월 한달 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GS칼텍스는 에너지 위기극

복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 실천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 및 여수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한바 있으며, 저소득가정의 난방비 및 창호, 단열,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에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민관공동사업 가구를 준공하는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롯데마트·슈퍼, 한국유통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롯데마트·슈퍼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유통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유통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서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가 유통 분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마트·슈퍼



SK바이오팜 “결식아동 위한 자원봉사 실천”

SK바이오팜은 지난 16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시각장애에 놓인 결식아동들을 위한 “행복상자” 포장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119개 기업, 126개 지방정부와 시민이 협력해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행복상자’는 경기도 성남시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또 SK바이오팜은 추가로 3000만원을 기부한다.

/SK바이오팜

에쓰오일, 급여 우수리로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지원



김광남 에쓰오일 부문장(왼쪽)과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2024 희귀질환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급여우수리 모금으로 9900만원 전달
희귀질환 어린이 웃음 찾기 협약도

에쓰오일 임직원들이 기금을 조성해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9900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에쓰오일 임직원 1700여명이 매월 급여에서 1만원 미만의 우수리를 모아 조성한 기금이다.

담도폐쇄증은 신생아희귀질환으로 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어 담즙(쓸개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해 간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담도를 만들어주는 카사이 수술을 시행하

나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 간이식 수술을 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희귀질환 어린이 밝은 웃음 찾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16년 간 210명 환아 가정에 약 2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차현정 기자



종근당홀딩스, ‘오페라 희망이야기’ 투어 성료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17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공연을 끝으로 2024년 ‘오페라 희망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종근당홀딩스에 따르면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공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펼치는 행사다. 올해는 7월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용인강남학교 등 전국 22개 병원과 특수학교에서 총 27회에 걸쳐 진행됐다.

/종근당홀딩스

오뚜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근로자 일·생활 균형 등 노력 인정

오뚜기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오뚜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실제로 오뚜기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모든 항목 A등급을 받은 ‘오뚜기 어린이집’을 오뚜기센터에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검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 직원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시차출퇴근제도,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도입을 통해 임신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 출산 시 축하차원에서 자사 오뚜기몰 마일리지도 지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B증권,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앞장

‘모두의 1층×서울’ 프로젝트 성료

KB증권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모두의 1층×서울’ 2024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모두의 1층×서울’ 프로젝트는 공공의 의지·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약자동행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교통약자 및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생활편의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KB증권은 지난 4월, 서울시 및 주요 프랜차이즈 등과 ‘모두의 1층×서울’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5월부터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23곳과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 문래동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 19곳을 대상으로 1층 매장 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에서 소규모로 추진돼 온 ‘모두의 1층×서울’ 사업이 서울시와 KB증권이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사업으로 확대된 것에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이동약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대한항공, 페트병으로 만든 어린이 안전용품 기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어린이 안전 용품을 기부했다. 대한항공은 17일 서울 강서구 강서소방서에 버려지는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안전 기방 덮개’ 500개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 덮개는 책가방에 씌우는 방수 재질로 어린이 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숫자인 “30”을 강조해 운전자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유도하도록 제작됐다.

/대한항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2 | 해질 / 17:16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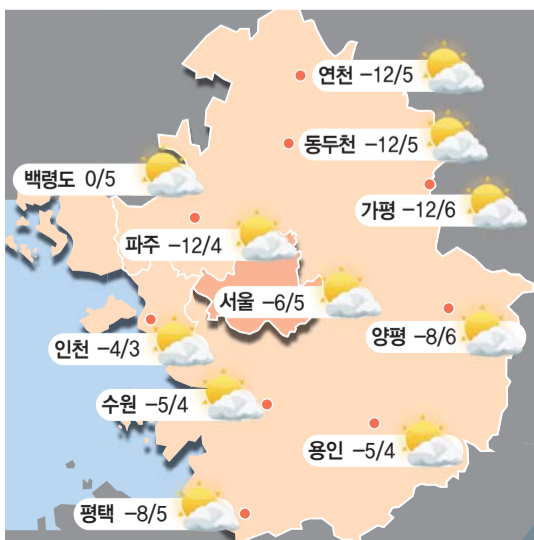
19일 (木)

음력 : 11월 19일

수도권 날씨

-6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샘, 우수 인재들 꿈·학업 지원

물류협력사 자녀 장학금 전달

한샘이 IMM 희망재단과 우수 인재들의 꿈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협력사 직원 자녀 23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IMM 희망재단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IMM 희망재단은 2013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샘은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사 가족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김유진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홍보담당관 정윤재
- ◆한국토지신탁 > 선임 ▲사장 김성진 > 부사장 송진 ▲도시·지원부문장 정명량 > 전무 승진 ▲전략사업본부장 심창우 ▲리츠사업본부장 김치완 ▲도시재생2본부장 배효진 > 본부장(실장) 승진 ▲기획실장 공현기 ▲도시재생3본부장 정경찬 ▲신탁지원본부장 이성훈
- ◆경남 사천시 > 4급 승진 ▲우주항공과 이숙미 ▲건설과 허원권 > 5급 승진 ▲투자유치산단과 남상미 ▲행정과 이훈수 ▲회계과 이영주 ▲주민복지과 허정두 ▲상하수도사업소 조용기 ▲해양수산과 송동주 ▲환경보호과 이혜원 ▲도로과 박용국 ▲정보통신과 박희관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의 중심, HUFS가 있다 세계와 우리, HUFS가 있다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AI융합학부 /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 기후변화융합학부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학생이 성공하는
HUFS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예측 ②



연은열의
푸드톡

현재까지 밝혀진 약 20만개의 단백질 구조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서 단백질구조예측 인공지능을 가장 빠르고 잘 학습시킨 결과, 구글 답마인드의 알파폴드가 스트러처 모듈패턴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개발했다. 단백질의 디자인과 함께 중요한 점은 원하는 단백질의 서열들을 설계해 주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은 1%도 되지 않았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십만 개를 디자인한 다음 그중에서 100개를 골라서 실험을 하면 한 개가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낮은 확률이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단백질 디자인의 장벽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단백질 디자인이 쉬워지면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단백질 디자인이 접목되고 활용될 것이다. 단백질 기반의 하

이드로젤을 개발해서 생분해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하거나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개발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단백질 디자인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단백질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지칭하는데 탄수화물과 지방분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데 반해 단백질은 약간의 열이나 산, 소금, 공기 등에 노출되면 특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의 변화는 단백질의 생물학적 역할과 기능에 기인한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주로 소극적인 저장에너지 형태에 불과하지만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단백질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세포를 만드는 분자를 조립하고 해체함으로써 세포 내의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분자를 이동하고 근섬유의 형태로 개체 전체를 이동시킨다. 단백질은 모든 기관의 활동, 성장, 운송과 같은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백질의 특성은 적극성과 민감성이 내재되어 있다.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조리할 때 단

백질 구조와 농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단백질의 역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의 기능 중 운송 역할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활용한다. 바이러스 표면에 여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돌기 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만약 이 돌기(spike) 단백질의 구조와 그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그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돌기 단백질이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연은열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어려운 시기, 더 큰 도약 위한 제약·바이오 업계 다짐



이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일 수록 다함께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해당 메시지는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말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힘든 말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출발 신호와 함께 실천적 변화를 요구하는 촉진제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내 제약 업계는 글로벌 시장 진출, 국산 신약 등장 등 여러 성과를 내며 발돋움해 왔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입지를 굳힌 셀트리온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11종의 제품군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렘시마'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받은 '집렌트라'까지 셀트리온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대표 정통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앞세워 'K신약'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탰다. 국산 항암제가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의 문턱을 넘으면서 그 후속 도전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의 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북경한미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 기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약품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까지 전체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연간 4000억원대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국산 신약의 탄생도 계속됐다. 올해 4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쿠보정'을 내놨다. 또 최근에는 비보존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거둔 성과가 신약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 연구개발을 지속할 학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다양한 산업 분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mlee236@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1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공돌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 노력하라. 48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60년생 계획만 원대하고 실천은 어렵다. 72년생 초심으로 돌아갈 문제를 해결. 84년생 자식의 경우 바른 행동은 나를 높여 준다.



37년생 주변 사람들과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 발생. 49년생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61년생 헛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3년생 젊을 때 지금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85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하루이다.



38년생 위염은 음식습관에 있겠으나 지나친 걱정에서 시작. 50년생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2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려야 한다. 74년생 조식이라든가 나가는 김새가 보인다. 86년생 곤은살이 생겨나서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간다.



3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메모하여 지출하도록. 51년생 원숭이띠 조연으로 일을 극복. 63년생 잔재주의 변명거리만 생각하다 일이 끝난다. 75년생 이만하면 훌륭한 삶이다. 87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40년생 나만 아는 이기심을 버려라. 52년생 실속 없는 일이 많이 생긴다. 64년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76년생 나의 기술력이 조직에서 빛나게 되지 힘내야 할 때. 88년생 천천히라도 한 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을 해보라.



41년생 늦지 않았으며 사회에서는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65년생 친구 방문한 날이 있다. 77년생 가슴 벅찬 행복한 날이다. 89년생 일이 마무리되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42년생 현실에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4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이득. 66년생 나이가 있으니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기자. 78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메모. 90년생 발전되는 자신의 모습을 느낀다.



4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55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라. 6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9년생 이직하려면 지나간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91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망을 가져라.



4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떠들지 말고 자중. 5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된 일을 마무라. 68년생 자녀와의 소통이 중요할 듯. 80년생 직장에서 대충 대충 하는 마음을 없애라. 92년생 오랫동안 쌓아온 공력으로 결실의 보람.



45년생 가슴이 해갈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57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69년생 긴 장마가 끝나고 활짝 갠 날. 81년생 생 부모님의 증여는 선행으로 준비해야 할 것. 93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46년생 지출이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만든다. 58년생 고민은 미리 할 것 없다.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방길을 돌아다니는 격. 82년생 시간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니 계획대로 해나가도록. 94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양보라.



47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다. 59년생 가족이라도 나도 내 가정이었으니 차용거래는 자제. 71년생 참을 만하면 참아야. 83년생 해외 여행할 기회이니 차분히. 95년생 바른 뒤에 땅이 굳어지니 경험도 중요하다.



김상회의四季 AI시대의 미래예측

“챗봇에 물어봐”가 대세인 시대다.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 등의 고객센터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전화해볼라치면 ‘보이는 화면’ 운운하며 챗봇에 물어오라며 유도를 한다. 맨 처음 AI가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부정적 시선과 여론이 높았다. 인공지능은 그저 게임에서나 쓰는 취미의 알고리즘 정도라면 이해되었던 듯하다. 알고고가 우리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기사와 대국하다가 인간이 인공지능에 졌다는 충격을 준 사건 아래로 두려움을 안기기도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판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대놓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현실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사회적 물의와 혼란을 부추기는 거짓 뉴스, 답페이크, 피싱이나 스미싱 등이 난무하고 있고 정상적 생활과 사고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가 진실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주학계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사주 감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도 벌써 십 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다. 그 내용의 심도와 통변의 정도의 평가를 더나 AI를 통한 이름 풀이 등 점차 사주 감명이나 미래예측까지 그 범주를 넓혀가는 추세다. 그러나 사주 감명은 통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통변은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글자는 글자일 뿐, 글자의 행간을 보는 통찰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음조차 함장된 AI의 출현이 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인간은 AI의 조종과 지배를 받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AI, 결국 인간은 AI의 종속물이 되어갈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해 보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5	4		6		2	1	3
3				9				6
6			1					2
						3		
7	9						6	5
		1						
9				5				7
5			3					9
1	3	8		7		5	2	4

7		2		8	3			1
	9				1	5	7	
	3							5
5	2			4				
6			3	5	2			4
				1				2
3						5		
	5	8	7				1	
2			9	7		8		3

무전공학과, 의대증원 등 '변수' 대학별 반영영역 체크는 '필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34만 934명)의 20.4%인 6만9453명으로 전년 대비 2811명 감소했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은 수능위주 전형이다. 수능위주 전형은 정시모집 인원의 91.9%를 차지하며, 6만3827명을 선발한다. 이어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 7.5%인 522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위주(종합)전형 183명 ▲학생부위주(교과)전형 174명 ▲기타 전형 45명을 선발한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다. 각 대학은 이 기간에 3일 이상 입학원서를 접수하며, 원서접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생 선발 전형은 '가'군 모집은 2025년 1월 7일부터 14일, '나'군 모집은 1월 15일부터 22일, '다'군 모집은 1월 23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진행된다. 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하며, 합격 후에는 한 곳에만 최종 등록할 수 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다. 합격자 등록은 일주일가량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19일 18시까지다.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하다.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은 2월 20일까지며, 추가모집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KU자유전공학부' 신설, 수능 반영방법 등 변경사항 확인해야



전 계열 수능 반영 영역·방법 변경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표 기반 감점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총 1364명을 모집한다. KU일반학생전형(정원내)은 가군 534명, 나군 562명, 다군 123명 등 총 1219명 선발하고, 기초생활및차상위전형(정원외)에서 63명,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에서 80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내)에서 2명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무전공(KU자유전공학부) 및 각 단과대 내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이다. 정시 인원으로는 KU자유전공학부가 가군에서 60명,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가 다군에서 60명을 선발한다. 공과대학자



건국대는 올해 무전공 및 각 단과대 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건국대

유전공학부 외의 각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시에 정시로 인원을 모집한다.

건국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및 방법을 변경했다.

먼저 자연 계열과 수의예과에 있던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 지정이 폐지됐다. 또, 기존 '인문', '자연', '예체능'의 계열 구분이 '언어중심(A)', '수리중심(B)', '예체능'과 신설된 'KU자유전공학부'로 변경됐다.

언어중심(A)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



박중효 입학처장

되는 모집단위는 문과대학 전체 학과, 사범대학 중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의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 매체연기학과다. 매

체연기학과와 경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 시 선발한다.

수리중심(B)은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하며, 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건국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다.

예체능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해당하

는 모집 단위는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와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의 학과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다.

KU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언어중심(A)과 수리중심(B)을 모두 적용한 뒤, 둘 중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건국대 정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내용도 달라졌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기반으로 총점 1000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건국대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다. 전체 정시지원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기간은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2월 13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모집인원 45.6% 정시 선발... 캠퍼스 구분 없는 모집군 배치



모든 계열서 필수 응시 지정과목 폐지
계열별 탐구영역 가산점... 각 4점씩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정시모집에서 총 2422명(전체모집인원의 45.6%)을 선발한다. 전형별로 수능위주전형에서 219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225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5명 증가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 3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경희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집단위에 변경사항이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로 선발하던 무전공 모집단위를 확대해 국제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로 신설 확대해 정시가



경희대는 국제캠퍼스까지 무전공 모집단위를 확대했다. /경희대

군에서 선발한다. 수능 반영계열은 자율전공학부는 사회계열, 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계열 비율을 적용한다(단, 국제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없음).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첨단학과 승인에 따라 미래정보디스플레

이학부로 모집단위명을 변경하고 36명을 선발한다. 한방생명공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는 학과 통합에 따라 생명과학대학의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모집단위명이 변경됐다.

경희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인문,



송주빈 입학처장

사회, 자연, 예술·체육계열로 모집 단위를 구분해 모집한다. 모든 계열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지정과목을 폐지했고, 계열별 반영 비율도 변경됐다. 인문계열은 전년도 대비 수학의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탐구 반영비율을 확대했다. 사회계열은 국어 반영비율 축소, 탐구반영비율을 확대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 대비 수능 과목 영역별 반영비율의 변동은 없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생긴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영어와 한국사는 본교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은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의 백분위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정시부터 계열별 가산점을 도입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는 과목당 4점씩 가산점이 적용되고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목당 4점씩 가산된다.

합격자 발표는 가군과 나군의 '일반전형(수능위주)-인문/사회/자연'과 나군 예술(무용학부 제외), 나군 체육(스포츠키도학과, 태권도학과 제외)은 1월 24일 오후 6시, 나머지 전형은 2월 7일 오후 6시이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추가된 최종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전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신설하고 인문·자연계 일반학생전형 수능 100% 선발



수능 한국사, 5등급 이하부터 감점
조형대학에도 2단계 면접고사 도입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하고, 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유형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8명을 모집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중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728명으로, 가군 인문기술융합학부 자유전공 300명, 나군 미래융합전공(인문) 166명, 미래융합전공(자연) 197명, 미래융합전공(예체능) 65명을 선발한다. 4개 모집단위가 모두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의 수능 성적 중 표준점수를 잘 분석하고 모집단위의 반영 비율을 잘 적용해 최



국민대는 올해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8명을 모집한다. /국민대

종 지원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융합전공(인문/자연/예체능)의 경우 여러 분야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반영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나, 입학 이후 1학년 말 전공 선택시에는 계열별 제한이 없다. 미래융합전공(인문

으로 입학하더라도 1전공 선택시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전공(예체능)으로 입학시에도 마찬가지로 1전공 선택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선택에 제한이 없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중 인문·자연



정승렬
총장

계 일반학생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다. 인문계 및 자연계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계열은 기존의 선택과목 지정이 해제되는 대신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탐구(과학탐구) 1과목당 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수능 영어 영역은 2021학년도와 계속하게 동일한 반영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으나 5등급 이하부터는 수능환산 총점에서 0.2점씩 감점 적용한다. 또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신설해 1~9호의 각 호별로 감점 혹은 부적격 처리를 진행하며, 국외고 등 학생부가 1개 학기도 없

는 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은 원서접수 단계에서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를 하거나 제출기한 내에 학생부 PDF를 업로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기존에 면접고사가 없었던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가 타 학과와 동일하게 2단계 면접고사를 도입해 1단계 성적 60%와 실기30%, 면접10%로 전형방법이 변경된다.

국민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적이 등급으로 제공되는 영어는 등급별로 배점을 부여하므로, 모집단위별 반영비율 및 배점을 확인하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신설된 작년도 입시 결과가 없는 전공자율선택제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의 경우 기존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계열별 평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나·다군서 총 631명 선발... '창의융합대학' 신설로 융합인재 양성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원서접수 실시
지정영역 반영 비율 모집단위 따라 달라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2025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일반학생전형(정원 내)으로 가군 369명, 나군 230명, 다군 32명 등 총 631명을 선발한다.

창의융합대학 신설은 이번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창의융합대학은 가군 자유전공(210명), 나군 첨단분야전공(51명)을 모집한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은 1학년 동안 폭넓은 학문적 탐구와 전공탐색 과정을



성신여대는 창의융합대학을 신설해 적성·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신여대

거쳐,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다. 자유전공은 간호·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첨단분야전공은 첨단분야 전공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문/자연계열은 가군·나군에서 모집하며,

예·체능계열은 가군·나군·다군에서 각각 모집한다.

일반학생전형(정원 내)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학과에 따라 수능성적(30~70%)과 실기고사 성적(30~70%)을



이성근
미래인재처장

반영해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수능 지정영역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는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을 필수 반영하며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상위 3개 영역 선택 반영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원 내 전형의 일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과학탐구 최상위 성적 한 과목에 추가 가산점(10%)을 부여한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지정영역 미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영어영역은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는 대체 불가하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모집단위와 전형별로 반영하는 탐구영역이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자격 필수인 한국사의 경우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68명,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 30명, 기회균형II전형(정원외) 15명을 모집한다.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 기회균형II전형(정원외)은 가군·나군에서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해 선발하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정원외)은 수시모집 해당 전형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나군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총 6개 첨단학과서 287명 모집... 육·해·공 협약 통해 군 계약학과 운영



인문사회계열 등 통합선발 실시
내년도 사이버국방전형 신설

세종대학교(총장 엄중화)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전형(가/나/다군), 군계약전형인 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전형(가군), 사이버국방전형(나군), 농어촌학생전형(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나군)을 통해 1313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세종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과 선발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경상호태관광계열·자연생명계열·IT계열·공과계열로 통합선발을 실시한다.



세종대는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국방전형 등을 신설했다. /세종대

모집군별로는 가군에서 509명, 나군에서 804명을 모집하며,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이월인원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2025학년도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2개 첨단학과를 신설해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

이언스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과 함께 총 6개 첨단학과에서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전형으로 261명, 농어촌학생전형으로 21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으로 5명을 선발해 첨단학과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총 287명이다.



변재문
입학처장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약학과 선발 전형인 사이버국방전형도 2025학년도 신설돼 나군에서 선발한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4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평가, 체력검정 및 육군본부 주관 전형(합/불 판정)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외에 세종대는 군 계약학과로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을 운영하며 각각 공군 및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이다.

일반학생전형 인문·자연계열은 수능 100%를 반영해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은 수능 성적 외에 모집단위에 따라서 실기고사 성적과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모집단위에 따라 전형 방법 및 실기고사 내용, 전형요소별 반영 비중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은 가군의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과 무용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나군에서 선발한다. 단, 무용과는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에만 정시모집 선발을 진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영역은 표준점수, 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며 영어영역은 등급을 반영한다.

군계약학과인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 전공,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 1단계에서 수능 100%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해군주관 전형 및 공군주관, 육군주관 전형을 실시한다.

또한 군계약학과의 경우 정시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논의 부적절
니



Life

GS칼텍스
난방유
나눔 봉사
L2



'다'군 창의ICT공과대학 전공개방 모집... 1년간 전공 탐색 기회



총 모집인원 44%, 1925명 정시 선발
각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에 가산 5%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4%인 1925명을 선발한다.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해 수험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능일반전형을 통해 총 1687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나, 전년도와 달리 '다'군에서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전공개방모집은 단과대학으로 합격한 뒤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학과에서 1년간 수업을 들



중앙대는 수험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모집 상담해피콜'을 운영한다. /중앙대

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군에서는 약학부, AI학과,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626명을, '나'군에서는

의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과, 경제학부, 심리학과 등 617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그리고 전공개방으로 모집하는 창의ICT공과대학 등 444명을



이상명
입학처장

은 모집단위별로 상이하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 수학 40%, 사회/과학 탐구 30%를 반영하고,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 수학 30%, 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하며, 전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 수학 35%, 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능 100%로 뽑는다. 단, 체육교육과는 실기 없이 수능 80%와 서류 20%로 선발한다.

수능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모집단위별로 상이하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 수학 40%, 사회/과학 탐구 30%를 반영하고,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 수학 30%, 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하며, 전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 수학 35%, 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회/과학탐구 점수 적용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탐구 선택에 따른 모집단위 지원 제한은 없지만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한 경우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응시한 경우 각각 탐구 과목의 변환표준 점수에 가산점 5%를 부여한다. 경영경제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는 탐구 과목과 상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앙대는 수험생의 컨설팅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모집 상담해피콜'을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 전년도 입시 결과와 대입 성적 예측 기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료를 함께 분석한 합격예측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전형 수능 100%...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 교육체계 구축



계열별 선택과목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시용합대학 등 첨단분야 학부 신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가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729명)의 42.3%에 해당하는 1576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391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이다. 군별로는 일반전형 가군 330명(서울캠퍼스 210명, 글로벌캠퍼스 120명), 나군 609명(서울캠퍼스 377명, 글로벌캠퍼스 232명), 다군 452명(서울캠퍼스 115명, 글로벌캠퍼스 337



한국외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외대

명)이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나군 50명, 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나군 42명, 다군 42명이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 10시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5시까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자격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5년 1월 7일까지 한국외대 입학처로



정석오
입학처장

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전형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전형은 물론,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능 100%를 실시한다.

한국외대는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인문/자연계열 모

우편 발송해야 한다. 최초합격자 발표는 일반전형 2025년 1월 31일, 특별전형 2월 7일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정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전형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전형은 물론,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능 100%를 실시한다.

한국외대는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인문/자연계열 모

집단위 모두에 지원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주로 선택하는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한국외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과 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정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AI융합대학 등 첨단융합 분야 학부를 신설해 어학·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무전공 선발을 확대·개편해 해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개 계열 130명 선발, 모집인원 많아 중위권 수험생 '주목'



백분위점수 기준 우수 3과목만 반영
학생부 반영·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어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0명을 선발한다. 군별로는 '가'군에서 81명, '다'군에서는 49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대비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으며, 경제통상·국제지역계열에서 모집했던 일본학 전공은 올해 신학·인문융합계열에 포함돼 모집한다.

한신대는 8개의 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1학년 때는 전공을



한신대는 올해 일본학 전공을 신학·인문융합계열에 포함했다. /한신대

탐색하고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모집단위가 크고 모집인원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합격선이 평균보

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도 있어 중위권 성적의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하다.

정시모집 전형에는 ▲일반학생(해당 모집단위, 수능 100%) ▲일반학생(특



지원배
입학·홍보본부장

수체육학, 수능 60%+실기 40%) ▲기회균형 선발(수능 100%) ▲농어촌학생(수능 100%) ▲특성화고졸업자(수능 100%)가 있다. 모든 전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며,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한 없다. 수능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백분위점수 기준 우수영역 3과목만을 반영하며, 우수영역 과목 순서대로 50%, 30%, 20%로 계산한다. 영어는 절대평가 반영방법에 따라 등급을 활용한 변환백분위로 반영하며, 한국사는 가산점을 전형총점에 부여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한신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를 이용하면 된다. 서류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15일 오후 5시까지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신대는 2021년부터 강성영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경영 및 발전계획인 '한신비전2030+'를 수립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100억원을 받고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대학혁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SAMSUNG

안심케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라이프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 부모님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자식 마음이죠

시라이프를 부모님 댁에 놔드려 보세요

잘 일어나셨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늘 알 수 있고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죠

청소, 세탁, 설거지도 다시에게 맡겨두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늘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시와 함께 늘 곁에 있는 듯
부모님을 세심히 살펴 드리세요



세상 편한 시라이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관련 프로모션은 예고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